

# 청정한 불국토 세계 꽃으로 승화

### 고승희 작가 1월 21일~2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중생들은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하며 죽어서도 극락행을 기원한다. 이는 분명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삶의 고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된 행동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고승희 작가(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 전공 초빙교수)가 진리의 말씀을 '극락화'에 담아 대중들을 찾아간다.

고 작가는 1월 21일~2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에서 '극락화'를 주제로 등 1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아름다운 꽃을 소재로 맑고 청정한 불국토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지난 전시 '불향'에서도 고고하고 화려한 연화와 모란화 그리고 보살화 등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깨우침의 향기를 묘사해 보았는데 이번 전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로 온 세상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넓고 깊은 진리의 꽃, 법의 꽃을 상징하는 연화와 보살화, 행복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모란화 등을 화폭에 펼쳐낸다. '아미타삼존례영도-극락향기'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아미타삼존이 수사발심(隨事發心)과 순리발

심(順理發心)의 깨달음으로 왕성한 이를 맞이하는 장면을 주제로 표현했다. 삼존상을 하나로 감싸고 있는 연꽃잎 광배와 상단에는 연화 천개(天蓋)를, 하단에는 삼존상을 받치고 있는 다채롭고 화려한 꽃들을 마련해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극락화 I-법의 향기', '극락화 II-진리의 향기'는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부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 사람들

### 몸과 마음의 깨우침 발원 '극락화' 주제 13 작품 발표 다양한 문양의 꽃 진리 표현

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형상을 표현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진 꽃들은 붉은색 계통의 온화함과 다양한 색채의 화려함으로 극락화를 묘사했다.

'아미타례영도-마중'은 화사한 분홍빛 색깔로 바탕색을 올리고 여러 가지 빛깔의 신성한 길조의 묘사로 왕생자를 맞이하는 환희의 순간을 그려냈다. '불향 I', '불향 II'는 '부처님은 꽃이며, 꽃은 부처님

이라는 관계의 의미를 묘사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천으로 만든 꽃을 부처님 형상과 형상을 제외한 바탕부분에 올렸다.

고 작가는 "2015년도 오직 향기로운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채워나가고자 한다. 찬란한 빛, 진리의 향기를 품고 있는 '극락화'처럼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향하는 대중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세계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 작가는 갤러리 한옥에 주최하는 '현대 화조화 모색전' (1월 23일~2월 5)에도 참여한다. 송영방, 유지원, 오명희, 한은경, 고승희, 최지은, 정해진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꽃비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데'와 '마음에 담으니 연꽃으로 피었네' 등을 출품한다. 고려불화에 나타나는 꽃을 소재로 현대 화조화를 모색한 고 작가는 '고려불화 속의 화조화'를 주제로 강연도 갖는다.

고승희 작가는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초빙교수이며, 대전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학술연구팀장, (사) 단청문화보존연구회 감사,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승희 작가의 '진리의 향기'. 고 작가는 다양한 꽃의 모양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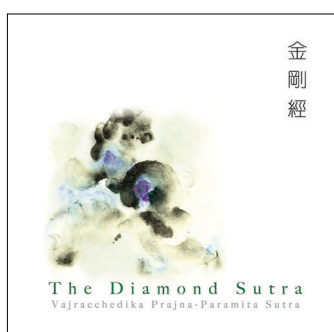
# 금강경 가르침 '천상의 목소리'로 탄생

### 콘텐츠코리아 불자뮤지션 이미우이 <금강경> 발매

불교의 핵심사상이 담긴 <금강경>이 불자 뮤지션 이미우이의 목소리로 재탄생했다. 콘텐츠코리아가 전세계 베스트 & 스테디 셀러로 알려진 <금강경> 명반을 발표했다.

이미우이는 말레이시아 화교계 불자 가수로 불교 만트라를 하나의 음악 장르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뮤지션이다.

이 앨범은 악기반주에 맞춰 노래로 부르는 음반이다. 유려한 멜로디에 이미우이는



이미우이 <금강경> 앨범 표지

'천녀지성(天女之聲)'의 목소리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들어 끝없는 평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노래는 듣기만 해도 커다란 공덕을 쌓게 된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음반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 금강경> 원문을 한글시대 누구나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비 스텝과 대심거사 조현준 박사가 우리말로 공역한 <가사체 금강경>, 금강경과 음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담긴 76페이지 스페셜 책자가 별도로 삽입되어 있어 금강경 공부에도 매우 유익하다.

정혜숙 기자

##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가족을 이끈 원동력... 무주상 보시

### 영화 '국제시장'

"당신 인생인데, 그 안에 왜 당신이 없노?"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이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고."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현장을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영화 '국제시장'에서 윤덕수(황정민 분)의 대사는, 며칠전 관람객수가 1천만명이 넘어섰다. 대중문화는 그 시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목마른 심적 갈증을 가장 잘 표현할 때 소위 대박에 성공한다고 한다. 요즘 극장가에는 가족영화의 흥행이 돋보이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냉혹하고 각박한 이 사회에서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목말라하는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핏 들으면 영화 '국제시장'은 진부할 것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렇게 세해 벽두부터 흥행 열풍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가족 생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가족을 지켜내고자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힘겨운 시대에 혼자 살아 내기도 버거운데 가족을 우선으로 여겼던 지난한 그때 그 시절, '괜찮다' 웃어 보이고 '다행이다' 눈물 흘리며 힘겹지만 웃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덕수의 삶은 부처님의 전생담을 다룬 자타카의 '원숭이 왕' 이야기를 연상케도 한다. 인간 세상의 왕이 원숭이 사냥을 하러 병사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쳐들어오자 원숭이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은 막다른 절벽이었다. 그 순간 원숭이 왕은 자기 몸을 다리로 만들어 그 위를 가족 원숭이들이 밟고 도망갈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마지막 원숭이가 왕을 밟고 무사



덕수네 가족사진이 담긴 포스터

### 덕수, 우리시대 아버지상 투영

### 자타카 '원숭이왕' 과 보살도 유사

히 절벽을 건너가자 원숭이 왕은 힘이 소진돼 숨이 끊어졌다.

인간 왕은 가족에 대한 살신성인과 보살행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 받아 살생 하려던 마음을 뉘우쳤다고 한다. 이 원숭이 왕이 부처님의 전생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덕수의 삶도 원숭이 왕과 매한가지다.

그 시절 아버지들의 삶은 이렇듯 고단했다. 포탄이 쏟아지는 베트남으로, 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독일 광산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선 전세계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다. 바로 가족이다. 가족에 대해 베푸는 덕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가정이라는 책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로운 인간애로부터 발로한다.

남동생의 대학등록금, 여동생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과감히 덕수는 자신의 꿈인 마도르스가 될 수 있는 길도 포기

한다. 온 몸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헌신한다. 무주상 보시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원래의 뜻은 법(法)에 무르지 않는 보시로 표현되었다. 이 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집착만을 남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상태에까지 이끌 수 있는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덕수는 일은 고되지만 힘들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과 보람으로 승화시킨다. 조선 중기의 휴정(休靜) 선사는 나와 남이 돌이 아닌 한몸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무주상보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고 보았다. 덕수의 보살도 가족 모두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가족이 평안하면 나라가 평안하다. 덕수 같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논하며 괄목할 만하게 발전해 왔다. 영화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한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한 공동 운명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뜻이 다르더라도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며,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동주공경' (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안 기쁘지만 힘껏 안아주며 말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들 먹여 살리시느라 힘든 세상 열심히 살아주셔서 참말로 고맙습니다네이. 그리고, 정말 미안하십니까이"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나르센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피이프 옵션 나르센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전통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람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의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들어

대원사 69 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 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공,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번째에 자유자재 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대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번째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종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법>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031-534-3373